



최재창 화백 개인전과 아내 한영숙 시인의 시화전이 오는 22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홍석민 작 '자연의리듬'

# “금속공예와 회화의 만남 추구했죠”

### 최재창 전, 22일까지 우제길미술관...아내 한영숙 시화전 함께 열려 '청실홍실' 시리즈 전시...동판과 시와의 만남 '또 하나의 작품'

‘금속공예와 평면회화의 만남.’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한지 작업을 즐겼던 최재창(80) 화백은 1989년 즈음에 과감히 ‘변신’을 택했다. 평면 회화에서 확장해 다양한 오브제 등을 활용하며 변화를 모색하던 그는 ‘동판’을 주재료로 선택했고, 작업은 30년 넘게 이어졌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추상미술 그룹 에보그에서 활동하며 추상작업을 꾸준히 해온 최재창 화백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광주 무등산 자락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팔순을 맞아 10년만에 여는 이번 개인전은 최근 첫 시집을 낸 아내 한영숙씨의 시화전까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한다. 아내의 시는 최화백이 직접 동판에 새기고 그림을 그려 ‘또 하나의’ 작품이 됐다. 이번 전시 도록과 시집의 앞과 뒤 표지도 같은 그림으로 꾸몄다.

‘청실홍실’을 연작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오롯이 담겼다. 작품을 도록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 특히 최 화백의 작품은 현장에서 감상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도록에서 평면회화처럼 보인 작품은 실제 동판을 캔버스 삼아 작업한 것들이다. 그는 동판을 소재로 정하고,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 홍익대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공부하는 열정을 보였다.

“금속공예를 서양화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산소불로 열처리를 하면 동판이 종이처럼 부드러워지는데 이 때부터 앞면에서는 일일이 두드리고, 뒷면에서는 부풀리는 작업을 하며 조형성을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이 과정이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리는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물감을 들고 색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금속공예 기교가 들어간 작품은 흥미롭다. 두드림과 부풀림의 정도에 따라 의식하지 않은 조형미가 나오기도 하고, 마치 청동기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동판을 부식시켜 녹색으로 부식시킨 점도 눈에 띈다. 동판에 작업한 터라 작품은 마치 라이트를 켜놓은 것처럼 빛나 신비한 느낌이 자아난다.

초창기 작업에서는 오방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0년전부터는 청색과 홍색을 중심색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주, 천지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청색과 홍색으로 작업을 하며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판을 두드리고 부풀리는 제 작업이 대장간 작업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장이는 농기구를 생산하는데, 저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웃음)”

전시작 중에는 '5·18 영령들을 위한 청실홍실 22-3' 작품이 눈에 띈다. 250개의 동판이 어우러져 하나의 설치작품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1980년 대동고 미술교사였던 그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빛’같은 것이기도 했다.

“당시 세상을 떠난 이들 중에는 제가 직접 가르쳤던 제자도 있고, 어린 청춘들도 많지요.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늘 외로웠을 저 영혼들을 어찌 달래줄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제가 청실홍실로 엮어보자 싶었습니다.”

18년 전 화순 도곡에 작업실을 마련한 최 화백의 곁에서 책임기를 좋아하던 아내 한영숙씨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최 화백은 아내에게 팔순을 맞아 마련하는 전시와 함께 시집도 내고 시화전도 하자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한사코 마다했어요. 50년 넘게 예술활동을 해온 남편과 그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문학소녀 수준인 제가 시집을 내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속스러웠거든요. 10년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함께 전시회를 여니 제게는 너무 큰 기쁨입니다.”

한 씨는 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얼마전 시집 ‘허공중중’(상상인 간)을 펴냈다. 전시실 옆 커피숍에서 열리는 시화전에는 모두 15점의 작품이 걸렸다. ‘머뭇거리네’ 등의 작품은 최 화백이 동판에 일일이 새겨 넣은 것으로 시와 어울리는 그림도 함께 넣었다.

“아내와 저는 시와 그림이라는 표현 방법만 다르지 서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 함께 작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로 화합...장애인아트페어 열린다

‘2022 광주에이블아트위크’ 20~23일 광주비엔날레 4전시관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는 장애인 작가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복지에서 예술·문화로 확장되면서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장애인 예술행사는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 장애인 작가들의 예술 역량을 선보이는 아트페어 ‘2022 광주에이블아트위크’가 열린다. 장애인 아트페어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몇차례 진행돼 왔고, 지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장애인예술인협회 등은 에이블아트위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전자광·이명자)를 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전, 개최권을 따냈다.

제 1회 장애인아트페어 ‘2022 광주에이블아트위크’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광주비엔날레 4 전시관에서 열린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고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 ‘22광주에이블아트위크’ 사무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장애인예술가의 풍부한 창작활동과 건전한 미술 생태계를 지향하는 미술축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운영감독은 윤의 기획자가 맡았다.

35개 부스를 운영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예술가 114명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비장애예술가 30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크게 4개 공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가치를 공감하는 작가를 초대한 ‘생생(生生) 아티스트전’에서는 박진·김병규·양경모 작가 등 24 인의 작가, 200 여점을 만난다.

‘생생(生生) 아티스트스페이스전’에서는 원로, 중년,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현재 국내 미술시장의 동향을 탐색해 본다. 김교생·신호재·최남숙·오호석·이명상 등 64명 작가 30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 섹션에 참여하는 일부 작가들은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진행,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 번째 전시공간 ‘생(生) 아티스테리어’는 선물용으로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을 제안하는 섹션이다. 초보 콜렉터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시로 미술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굿즈를 판매한다.

‘생생(生生) 아트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미술체험 공간이다. 단순하게 관람하는 기존의 전시와 달리 현장 주문형 작품제작이 가능하며

참여작가들의 초상화 그려주기, 판화체험, 공예품제작 등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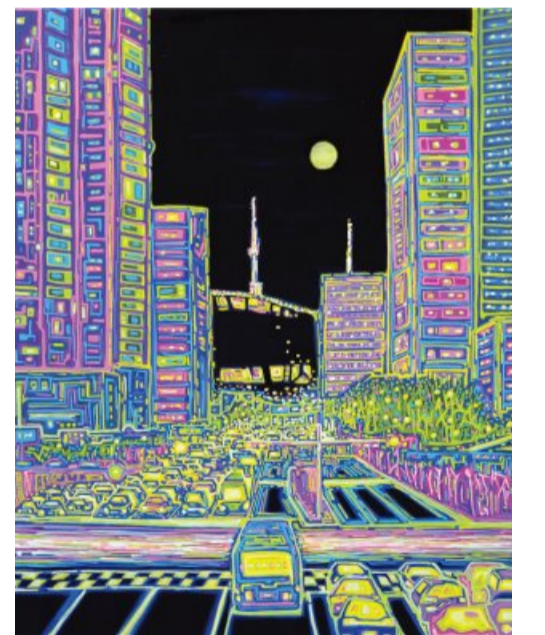
초대작가전에서는 김영민·방두영·손영락·이정희·허진 등 5명의 국내 대표 장애인 작가를 소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주요 장애인 예술단체도 만난다.

문화강좌로는 만화가 이해경의 ‘웹과 만화와 장애인 작가 이야기’(21일 오후 3시), 김병현 소촌팩토리 센터장의 ‘기쁨과 만족의 미술품 수직’(22일 오후 3시),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의 ‘호남 미술 현장의 이해’(23일 오후 3시) 등의 강좌가 펼쳐진다.

아트페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킨 주 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공공기관, 전문컬렉터의 상호교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전시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작가들의 아트상품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복안이다.

전자광 공동위원장은 “여러 도시와 경쟁을 벌였는데 장애인 예술가들의 콘텐츠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광주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가 장애인 예술의 메카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동민 작 '안국동에서 바라본 남산타워 야경'

# 광주에서 만나는 일본화

광주·전남-가고시마 미술교류전, 20~30일 갤러리D

지난 1991년 4월 일본 가고시마 구주전력 이리스 화랑에서 제 1회 한일(광주-전남-가고시마) 미술교류전이 열렸다. 당시 전시에서는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개최하는 무등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일본 가고시마 창원회 회원 40명이 참여했다.

이듬해에는 일본 작가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졌고 광주남부미술관에서 양국 작가 76명이 참여한 전시회가 열렸다. 1993년 일본 가고시마 미술진흥회가 교류전 중심 단체로 조직되면서 두 지역의 교류는 정기 교류전으로 정착됐다.

제 27회한일(광주·전남-가고시마) 미술교류전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D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5시.

코로나19로 2년간 전시가 열리지 못해 3년만에 개최되는 교류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47점이 나왔다.

광주·전남에서는 한국화의 김재일, 문인화의 김선화·박태후·이부재, 서양화의 고현주·김미정·김영태·김일해·노의웅·유미숙·문정호·민경철·박영진·박효아·이승희·장연희 작가가 참여했다. 또 사진의 송재은·공예의 김미선·김석식 작가도 작품을 출품했다.

참여작가들은 대둔산, 제주, 내장산 등 한국의



문정호 작 '도리지꽃'



심수관 작 '미륵보살상'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풍경화를 비롯해 해바라기 등 꽃과 나무로 화폭에 담았으며 추상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화, 서양화, 공예, 서예, 일본 종이 회화 등 6개 장르에서 19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눈길을 모으는 작품은 15대 심수관의 도자기 작품 ‘미륵보살상’이다. 또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일본화도 만날 수 있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교류전 개최와 무등미술대전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리얼월드, 광주하다’ 미션투어 콘텐츠 16종 공개

휴대폰 어플 속 게임 콘텐츠를 통해 광주 곳곳을 흥미진진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재)광주광역시관광재단과 ㈜유니크굿컴퍼니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진행한 디지털 관광 콘텐츠 교육과정의 결과물이 어플을 통해 17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작품은 교육과정인 ‘리얼월드, 광주하다’에서 제작된 디지털 게임 방식의 미션투어 콘텐츠 16종이다.

공개된 콘텐츠들은 매력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광주 관광지와 관광 크리에이터의 스토리텔링이 결합됐다. 게임 참여자는 모바일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단서를 찾는 미션을 수행한다. 이 과

정에서 스토리에 몰입하게 돕는 GPS, AR, 챗봇 등 실감콘텐츠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게임 등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관광지를 체험하게 된다.

우수작 짝꿍 스튜디오의 ‘이상한 터미널의 유숙이’는 유스퀘어를 방문한 주인공이 도깨비의 장난으로 몸이 작아진 유숙이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터미널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콘텐츠로 터미널 내 숨은 공간과 조형물을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다.

해당 게임은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광주하다’를 검색하면 실행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